

# ‘被’자 구문에 대한 생성어법적 연구

蔡藝玲\*

---

◁ 목 차 ▷

---

- I. 서론
    -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 2. 연구방법
  - II. ‘被’자 구문의 유형 및 통사적 특징
    - 1. 1항 ‘被’자 구문 vP도출
    - 2. 2항 ‘被’자 구문 vP도출
    - 3. 3항 ‘被’자 구문 vP도출
  - III. ‘被’자 구문, 非作格, 非賓格동사의 변환과정
  - IV. 결론
- 

## I. 서론

###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알다시피, 중국어에는 몇 가지 특수한 문형이 있다. 이런 문형들의 특징을 살펴 보면 대부분은 동사의 사건변화에 근거하지 않고, 단지 어순배열을 통하거나 문장 전체의 의미에 의거하여 해석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被’자 구문이나 ‘使役’구문 등이다. 중국어 동사는 그 자체에 피동이나 사역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문법을 주관적으로 기술하게 된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현대중국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被’자 구문이 문장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피동의 의미로 전달될 수 있는지? 어떠한 사건구조 단계를 거쳐 해석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被’자 구문 중 1, 2, 3항 ‘被’자 구문의 vP도출 과

---

\* 国民大学校 中语中文学科 助教授

정에서 나타난 특징에 대해 파악함과 더불어, ‘被’자 구문, 非作格<sup>1)</sup>, 非宾格<sup>2)</sup> 동사가 서로 변환이 가능한 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 2. 연구방법

본고는 ‘생성문법의 최소주의이론’ 중의 한 부분인 경동사 구조, 즉, ‘사건구조화 개념’의 특징에 따라, ‘被’자 구문의 1, 2, 3항 ‘被’자 구문을 도출한다. 중국어 문장에서 동사는 형태변화가 없는 관계로 해석을 할 때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 그러나 경동사 ‘사건구조 개념’이라는 단계를 원형동사에 적용하여 ‘사건화’를 거치게 되면 동사가 형태변화를 가지는 이유에 대한 핵심적인 답을 얻을 수 있으며, 문장 해석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登思颖(2010)<sup>3)</sup>, 何元建(2011)<sup>4)</sup>는 vP의 경동사 사건구조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다. ①[DO](곧, 혹은 행동), ② [BE](상태, 묘사), ③ [BECOME](완성, 달성), ④ [CAUSE-BECOME](원인, 결과)이다.

黄正德(2007)<sup>5)</sup>는 “동사의 논항구조와 통사구조를 상세히 연구한 결과 1, 2, 3항 동사는 모두 非作格(unergative)과 非宾格(unaccusative)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3항 非作格동사는 하나의 주어와 두 개의 목적어, 즉, 내부목적어와 외부목적어를 가질 수 있으며 행위자, 피영향자, 피험체(피험자)가 논항의 의미역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에 3항 非宾格동사는 두 개의 주어와 하나의 목적어를 가질 수 있으며, 주어는 대주어와 소주어로 구분할 수 있고 원인자, 경험자, 대상자(피험자)가 논항의 의미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黄正德의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 1) 非作格동사: 행동이나 행위와 관련되어 행위주 의미역을 갖는 자동사이며, S구조와 D구조에서 모두 논항이 주어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사를 비능격(unergative) 동사라고 한다.
- 2) 非宾格동사: 형용사로 표현될 수 있는 자동사(크기, 모양, 무게, 색깔, 냄새 등)나 피험체 의미역을 갖는 자동사와, 존재나 발생을 기술하는 자동사들이다. 다시 말하면, 논항을 하나밖에 갖지 않는 동사는 통례로 그 논항이 주어가 된다. 그러나 D구조에서 그 논항이 주어라 아니라 목적어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사가 존재한다고 하는 가설. 이런 종류의 자동사를 비대격동사라 한다. חס스키 언어학 사전(2003:730)
- 3) 登思颖, 《形式汉语句法学》, 哈佛大学, 2010, 87쪽.
- 4) 何元建, 《现代汉语生成语法》, 北京大学出版社, 2011, 218쪽.
- 5) 黄正德, 《汉语动词踢元结构与其句法表现》, 哈佛大学语言学系, 2007, 4쪽.

1, 2, 3항 동사를 1, 2, 3항 ‘被’자 구문으로 변환하는 과정과 vP도출과정을 살펴, 변환이 가능한 동사와 변환이 불가능 동사의 특성에 대해 알아본다. 아래 표(1)의 예문을 보면:

표(1) 변환 가능 동사. 변환 불가능 동사

동사 종류	예문	3항 ‘被’자 구문
3항 非作格동사	小王打了他一个大嘴巴。	他被小王打了一个大嘴。
3항 非宾格동사	我借了他一本书。	*他被我借了一本书。
2항 非作格동사	小王打了他。	他被小王打了。
2항 非宾格동사	我借了一本书。	*被我借了一本书。
1항 非作格동사	他笑了。	*他被笑了。
1항 非宾格동사	打了他。	他被打了。

위의 표(1)을 살펴보면, 동사의 속성에 따라 2, 3항 非作格동사는 ‘被’자 구문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1항 非作格동사도 ‘被’자 구문으로 변환이 가능하지만 의미가 다름으로 비문으로 처리하였다. 1,2,3항 非宾格동사를 보면 1항 非宾格동사를 제외하고 모두 예문이 성립되지 않으며, 대부분은 비문이다. ‘被’자 구문 대부분은 ‘X에게 Y가 당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즉, 피영향자(蒙事) + 被 + (행위자) 施事 + V + (기타)의 구문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예문에서 非宾格동사인 경우 행위자의 의미가 거의 없다. 그리고 1항 非作格동사에서 ‘他’는 행위자이지만 ‘被’의 구문으로 변환하게 되면 피영향자(蒙事)로 바뀌게 되면서 원인자 중심의 구문인 非宾格동사의 의미로 바뀌게 되고, 의미가 서로 다른 구문이 된다.

본고는 이와 같은 vP의 경동사의 사건구조 개념. 즉, ① [DO](곧, 혹은 행동), ② [BE](상태, 묘사), ③ [BECOME](완성, 달성), ④ [CAUSE-BECOME](원인, 결과)에 사건을 적용하여 나타나는 사건화 단계를 설명한다.

## II. ‘被’자 구문의 유형 및 통사적 특징

전통 중국어 어법학에서 말하는 ‘被’자문에 대해 刘月华(2004:753) 등은 “행위자가 주어의 자리에 오지 않고, 전치사 ‘被’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나타낸다. 이것은

중국어 문법에만 있는 특수한 문형이며 보통 ‘被’자문으로 통칭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생성문법에서 말하는 ‘被’자 구문에 대해 최병덕(2015:3)은 “‘被’자 구문은 시사격 표시기능을 나타내는 구문으로 보며, 단지 뒤의 명사구 ‘NP’의 격을 표시하는 기능밖에 없다고 간주하고 그것을 ‘被’자문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登思穎(2010:190)은 ‘被’자문을 행위자의 출현에 따라 행위자가 없는 구문은 ‘短被动句’, 행위자가 있는 구문은 ‘长被动句’로 구분하였다. 그는 또 피험자(목적어)가 없는 구문은 ‘直接被动句’, 피험자(목적어)가 있는 구문은 ‘间接被动句’로 구분하였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 (1)
- ㉠ 小王被打了。(短被动句)
  - ㉡ 他被公司录取了。(长被动句)
  - ㉢ 他的钱包被盗了。(直接被动句)
  - ㉣ 张三被杀了父亲。(间接被动句)
- (2)
- ㉠ 小王被骗了。(直接短被动句)
  - ㉡ 她被男同学欺负了。(直接长被动句)
  - ㉢ 他被盗了小提包。(间接短被动句)
  - ㉣ 他被人家抓住了把柄。(间接长被动句)

위 예문에서 보듯 ‘被’자 구문의 (1),(2)의 특징을 (长/短)、(直接/间接)으로 구분 하였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상의 유형을 간단하게 구분할 수도 있다. 여기서 예문(1)과 (2)의 통사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短被动句(1㉠)’, ‘直接被动句(1㉢)’, ‘直接短被动句(2㉠)’는 문법구조가 동일하다. 그리고 ‘长被动句(1㉡)’, ‘直接长被动句(2㉡)’, ‘间接长被动句(2㉣)’도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나머지 ‘间接被动句(1㉣)’, ‘间接短被动句(2㉢)’도 동일한 통사구조이다.

따라서 (1),(2)의 특징과 내재된 속성을 살펴, 2가지 유형으로 간단하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첫 번째 유형은 (被V)의 구조인 (2㉡㉢)이며, 두 번째 유형은 (被NP)의 구조인 경동사 구문 (2㉠㉣)이다.

이상과 같은 ‘被’자 구문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 외에, 何元建(2011:356)은 ‘被’자문의 1항, 2항, 3항 동사가 VP의 성격에 따라 非作格과 非宾

格동사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유에 근거하여, 1항, 2항, 3항 ‘被’자 구문이 非作格 동사와 非宾格 동사로 변환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를 증명하고, 비문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 1. 1항 ‘被’자 구조의 vP도출

1항 ‘被’자 구문은 목적어가 없는 구문으로 행위자가 없이, 피영향자가 주어의 자리에 위치하며 ‘被V’의 논항이 된다. 즉, ‘Ø+V+내부논항(목적어)’ 구문이며, 무주어문으로 피험체 혹은 대상을 그 목적어로 하는 非宾格동사 구문이다. 아래의 1항 ‘被’자 구문인 ‘直接短被动句’ 구조를 살펴보자.

표(2) 1항 ‘被’자 구문과 일치한 ‘直接短被动句’ 구조

1항 ‘被’자 구문	1항 非宾格 동사	1항 非作格 동사
㉠ 小王被骗了。	㉡ 骗了小王。	*㉢ 小王骗了。
㉣ 银行被抢了。	㉤ 抢了银行。	*㉥ 银行抢了。
㉦ 玻璃被打碎了。	㉧ 打碎了玻璃。	*㉨ 玻璃打碎了。

먼저, 표(2)의 1항 ‘被’자 구문 (㉠~㉦)를 살펴보자. (㉠~㉦)는 ‘被’자 뒤에 施事가 없이 바로 ‘被V’와 같이 ‘被骗, 被抢, 被打碎’로 이루어 졌다. 그렇다면 예문 (㉠~㉦) 구문에서 ‘被’자를 개사로 보느냐, 아니면 동사로 보느냐에 의문점을 가진다. 朱德熙(1982), 吕叔湘(1980)는 ‘被’자를 개사로 보았고, 登思颖(2010), 何元建(2011)은 동사로 보았으며, 胡建华(2005)는 ‘被’자를 개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라고 밝혔다. 여기서 본고는 ‘생성문법의 최소주의(MP)’에 근거하여 ‘被V’를 동사로 보고 登思颖(2010), 何元建(2011)의 주장을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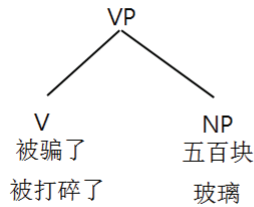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만약 개사라고 한다면, 개사의 용법에 따라 ‘在他家玩, 给他买’과 같이 ‘被’자 뒤에 ‘NP’를 허용할 것이다. 그러나 (被V)는 중간에 다른 施事의 삽입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비문이 된다. \*被他骗, \*被他抢, \*被玻璃打碎이다. 이런 이유는 ‘被’자가 개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被V)를 동사라고 한다면, ‘学了汉语, 看了电影’처럼 ‘被’자 뒤에 ‘了’를 허용할 것이다. 그러나 ‘被’자의 뒤에 ‘了’를 부가하면 \*被了骗, \*被了抢, \*被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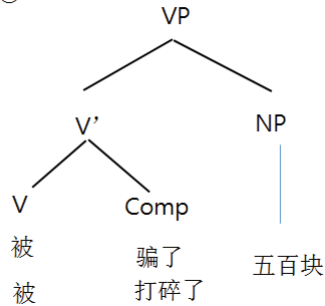
打碎'과 같은 비문이 된다. 시제사 '了'는 '被騙, 被搶, 被打碎'의 뒤에서만 '被騙了, 被搶了, 被打碎了'의 구문을 허용한다. 이러한 사실은 '被'자 자체가 단독으로 동사인 것이 아니라 '词'로 이루어진 덩어리 동사임을 알 수 있다. 다음 수형도를 통해 '被騙, 被搶, 被打碎'가 덩어리 동사임을 증명한다.

[수형도1] 1항 '被'자 구문 '被騙了五百块'의 도출 과정을 통해 덩어리 동사임을 증명한다.]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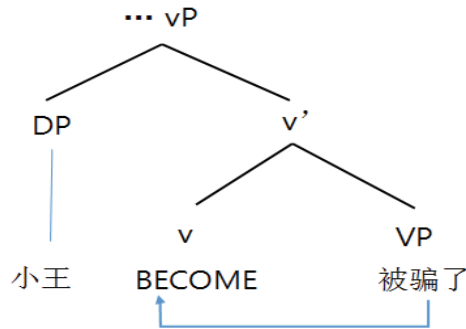


\* ②



위 예문①에서 보이는 '被騙了, 被打碎了'는 모두 덩어리 동사 V이며, NP는 V의 목적어이면서 보충어(Compiement)이다. 즉 ①의 VP의 기초어휘단계 'V+NP'구의 동사(被V)는 NP의 의미역으로 (五百块)을 할당한 (VC)구이다. 그러나 \*②처럼 '被'가 'Compiement(騙了)'를 의미역으로 할당한 뒤, 다시 'V'의 의미역으로 NP(五百块)를 할당한 구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원인은 '被'자 자체가 의미역으로 동사를 할당할 수 없고 다만 행위자 NP를 할당하여 '被+NP'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被V'는 어휘부에서 통사부로 직접 전달한 동사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본고에서는 '被騙, 被搶, 被打碎'를 덩어리 동사로 분류하였으며, 이런 분류를 통하여 1항 '被'자 구문 '被V'가 非作格동사 구문으로는 변환될 수 없고, 1항 非宾格동사 구문으로 변환될 수 있음을 경동사 [BECOME]를 통해 설명한다.

[수형도 2) 1항 '被'자 구문 '小王被骗了'의 도출과정]



위 수형도2)에서 경동사 (BECOME)은 VP의 핵 성분 '被骗了'를 당겨 '被骗了-v [BECOME]'를 형성하고 v'로 투사하여 [v' BECOME 被骗了] 구문을 형성한다. v'는 'DP'의 지정어 자리에 의미역 '小王'를 할당한다. 그리고 'DP'와 병합하여 vP로 투사하여 [vP 小王[v' BECOME(VP 被骗了)]]구문을 형성하게 된다. 결국 경동사는 'VP(被骗了)'를 보충어로 가지며, V를 당기어 'V-v'를 형성한 뒤, 지정어 (Spec) 위치의 DP(한정어 명사구) 피영향자 주어인 '小王'과 병합하여, '피영향자가 보이지 않는 행위자에게 사기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변화 구문과 결과 구문이다. 즉, '小王被骗了'라는 구문을 도출하게 된다. 위의 표(2)의 (㉔~㉕)에서 1항 '被'자 구문을 1항 非宾格동사로 변환하면 ㉔ 骗了小王. ㉕ 抢了银行. ㉖ 打碎了玻璃이다. '小王, 银行, 玻璃'는 모두 대상자 혹은 피험자(체)인 피영향자이다. 구조상 1항 '被'자 구문 '피영향자+被V'는 1항 非宾格동사인 'Ø+V+受事'의 구문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표(2)의 (㉗~㉙)를 보면 1항 非作格 동사로 '小王骗了. 银行抢了. 玻璃打碎了.'에서 동사 '骗了, 抢了, 打碎了'는 2항 非作格 동사에 속하므로 두 개의 논항에 각각 부여하는 의미역은 행위자와 피험자(체)가 반드시 담당하고 있어야 하며 동작을 나타내는 타동사여야 한다. 그러나 '小王骗了. 银行抢了. 玻璃打碎了.' 구문은 행위자는 있지만 피험자가 없는 구문이다. '银行抢了, 玻璃打碎了.'에서 '银行, 玻璃'는 사물에 속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행위자 의미역을 담당할 수 없다. 따라서 1항 '被'자 구문은 1항 非作格동사로 변환 할 수 없다. 표(2) ㉗~㉙)는 이러한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으며 비문이 된다.

## 2. 2항 '被'자 구조의 vP도출

2항 '被'자 구문에서 하나는 '間接短被動句(3)㉑'로 'NP(피영향자)+被V+NP(피험체)'구문이며, 다른 하나는 '直接長被動句(3)㉒'이며 'NP(피영향자)+被+NP(행위자)+VP'구문이다. 2항 非作格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타동사로 '주어(행위자)+V+피험자/대상자' 등 내부논항이 삽입되어 형성된 구문이다. 즉, Agent(행위자)+V+patient(피험자)구문이다. 표(3)을 보면 2항 '被'자 구문은 2가지 유형이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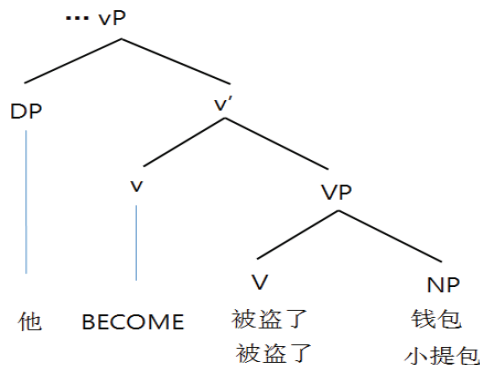
표(3) 2항 '被'자 구문의 두 가지 유형

2항 '被'자 구문	2항 非作格동사	2항 非賓格동사
㉑ 他 被 盜 了 錢 包。(間 接 短 被 動 句)	㉓ 盜 了 他 錢 包。	* ㉔
㉒ 玻 璃 被 他 打 碎 了。(直 接 長 被 動 句)	㉕ 他 打 碎 了 玻 璃。	* ㉖
㉒ 她 被 男 同 學 欺 負 了。(直 接 長 被 動 句)	㉗ 男 同 學 欺 負 了 她。	

### 2.1 '間接短被動句' 'NP(피영향자)+被V+NP(행위자, 피험체)' 경우

2항 '被'자 구문의 '間接短被動句' 'NP(피영향자)+被V+NP(행위자, 피험체)'구문은 경동사 [BECOME]을 핵으로 하며, vP의 지정어에 할당되는 의미역은 <피영향자>이다. 아래의 수형도를 통해 사건구조의 도출과정을 살펴보자.

[수형도 3] 2항 '被'자 구문인 '표(3)㉑'의 도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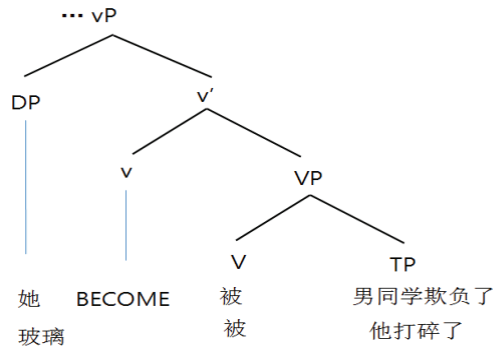
위 수형도에서 [被V]를 나타내는 ‘被盗了’는 먼저 자신의 안전성을 위하여 보충어 (Compiement)자리에 피험체 의미역 ‘钱包, 小提包’를 할당한 후 ‘被V’는 보충어 (Compiment)와 병합을 하여 동사구 VP구문을 형성한다. 경동사 [BECOM]이 통사부에서 ‘v’의 자리에 생성이 된 후, 동사[被盗了]와 병합을 하게 되며, 이 때 [BECOM]은 지정어 자리에 ‘蒙事’ 의미역을 할당하게 된다. 따라서 vP구문을 도출할 수 있다. [他 [BECOM] 被盗了 钱包] 구문의 사건구조를 해석하게 되면 ‘영향자인 그는 일을 겪었는데 그 일은 지갑을 도둑 맞힌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수형도에서 보이는 [BECOME]은 음운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사를 당겨 ‘V-v’를 구성한 뒤, 병합이 되면서 동사의 음운형태에 의지하여 ‘일을 겪었다’는 어순과 함께 [被盗了]의 음운형태를 생성되게 된다.

결국, 위 수형도가 보여주는 것은 ‘间接短被动句’ ‘NP(피영향자)+被V+NP(피험체)구문의 도출과정이며 경동사 [BECOME]을 핵으로 도출된 사건구조이다.

## 2.2 ‘直接长被动句’ ‘NP(피영향자)+被+NP(행위자)+VP’ 경우

2항 ‘被’자 구문의 ‘直接长被动句’와 ‘间接短被动句’를 비교하면, ‘被’자 뒤에 NP(행위자)가 있다. ‘NP(피영향자)+被+NP(행위자)+V’구문도 경동사 [BECOME]을 핵으로 하며 vP의 지정어에 할당되는 의미역은 여전히 <피영향자>이다. 그러나 표(3)㉔와 표(3)㉕의 도출과정에서의 기초어휘배열이 서로 다르다. 아래의 수형도를 통해 사건구조의 도출과정을 살펴보자.

[수형도 4] 2항 ‘被’자 구문, 표(3)㉕의 도출과정



2항 '被'자 구문의 '直接长被动句'에서 [BECOM]이 지정어(Spec)자리에 할당한 의미역은 피영향자 의미역이다. 이 경우는 '间接短被动句' 구문과 동일하다. 그러나 '间接短被动句'에서 '被'자는 문장의 어근이다. '男同学欺负了', '他打碎了'에서 '男同学'와 '他'는 '欺负'와 '打碎'의 논항이다. 따라서 '男同学欺负了'와 '他打碎了'는 '被'자의 보충어(Compiement)가 된다. 이 때 [BECOM]은 지정어 자리에 '蒙事'(피영향자) 의미역을 할당하게 되며 따라서 vP구문을 도출 할 수 있다. '她 [BECOM被] 男同学欺负了'구문의 사건구조를 해석하면 '피영향자가 행위자 남학생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2항 '被'자 구문 표(3)④의 '他被盜了钱包.'의 문장에는 행위자가 없다. 단지 '피영향자+被盜了+피험체'로 된 구문이다. 그러나 2항 非作格동사 구문 '盜了他钱包'에서 '他'는 '盜了'의 피영향자로 '钱包'는 피험체이다. 따라서 두 구문은 서로 변환이 가능하다. 표(3)⑤의 '玻璃被他打碎了. (直接长被动句)'구문은 '피영향자+被+행위자+V'구문으로 2항 非作格 구조의 논항규율에 부합이 되며 2항 非作格동사의 ④구문으로 변환 할 수 있다. 따라서 2항 '被'자 구문의 (间接短被动句), (直接长被动句)와 2항 非作格동사와의 상호변환에는 서로제약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3)에서 2항 '被'자 구문을 2항 非宾格 동사로 변환함에 있어서 제약이 아주 크다. 2항 非宾格 동사는 '원인자+경험자+대상자'로 이루어졌지만 2항 '被'자 구문은 원인자 중심이 아닌 행위자, 피영향자, 피험체의 구문이므로 표(3)의 \*㉑와 \*㉒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 3. 3항 '被'자 구조의 vP도출

3항 '被'자 구문은 3개 혹은 3개 이상의 논항을 가지고 있는 구문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3항 '被'자 구문이라고 한다. 3항 '被'자 구문은 'NP(피영향자)+被NP(행위자)+V+(대상자, 피험자, 피험체)'와 같은 구문의 통사구조를 가진다. 3항 '被'자 구문 'NP(피영향자)+被NP(행위자)+V+(대상자, 피험자, 피험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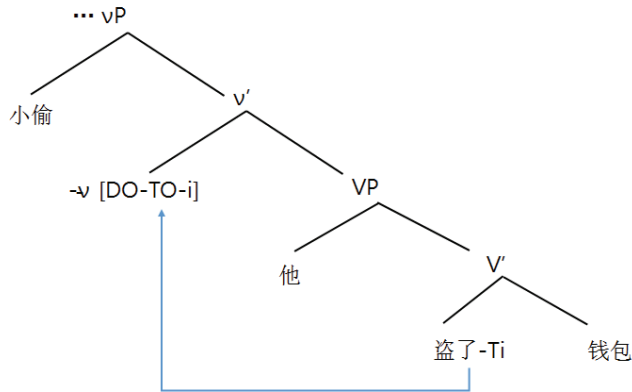
(3) ㉑ 他被老师打了一耳光. (3항 被자 구문)

黄正德(2007)에 따르면, 3항 ‘被’자 구문을 ‘경동사 vP’구문의 사건구조를 도출 하려면 반드시 [DO-TO…ACT]이라는 의미 성분을 필요로 한다. 주의 할 점은 “3항 ‘被’자 구문은 단일주어와 이중 목적어로 이루어진 구조로 하나의 주어(피영향자)와 두 개의 목적어(피험체, 내부목적어)와 (피영향자, 외부목적어)를 가진 3항 非作格 구조”라고 밝혔다. 6) 3항 非作格 동사가 앞으로 이동하여 그 자리를 채워 주고 외부목적어가 동사 뒤에 위치하여 행위자의 의미역을 가진다. 이 때 [DO-TO]는 동사를 당겨 [V+DO-TO]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의 목적어 (대상자, 피험체)와 두 개의 주어(원인대주어)와 (경험자 소주어)를 포함하는 3항 非宾格 동사는 3항 ‘被’자 구문으로 변환을 할 수 없다. 그 원인을 3항 非作格 구조, 3항 ‘被’자 구문, 3항 非宾格 동사의 사건구조 도출과정으로 알아보자.

표(4) 3항 非作格 동사구조, 3항 ‘被’자 구문, 3항 非宾格 동사 비교

3항 非作格 동사 ① 小偷盗了他钱包。	3항 ‘被’자 구문 ② 他被小偷盗了钱包。	3항 非宾格 동사 * ③
-------------------------	---------------------------	------------------

[수형도 5] 3항 非作格 동사, 표(4)①의 도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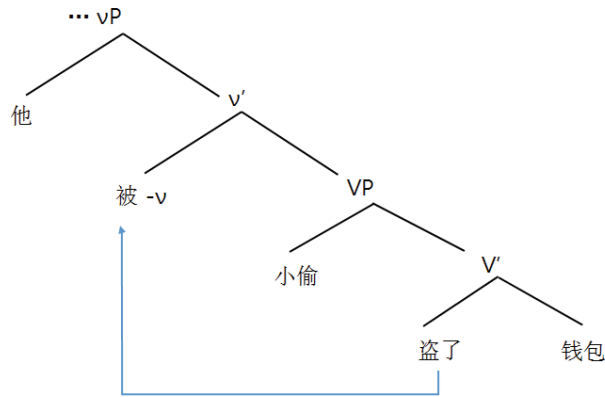


黄正德(2007)에 따르면 3항 非作格동사는 [DO-TO…ACT]의 두 가지 의미성 분으로 구분한다. vP의 사건구조는 ‘X가 Y에게 어떠한 행동을 가한다.’ 즉, 3항 非

6) 黄正德, 《汉语动词踢元结构与其句法表现》, 哈佛大学语言学系, 2007, 11쪽.

作格구문은 동사가 앞으로 이동하여 그 자리를 채워주고 외부 목적어가 동사 뒤에 위치한다. 이 때 [DO-TO]는 동사를 당겨 [V+DO-TO]를 형성하게 된다. 외부목적어 ‘我’는 피영향자(간접 피험자)이며 지정어 주어는 행위자이다. 따라서 동일한 非作格 동사 구문인 아래 예문을 해석하게 되면 [vP 小偷 [v' DO-TO -i [VP 他 [V' 盜了 Ti NP 钱包]]]] 구문의 사건구조이며 ‘도둑은 그의 지갑을 훔치는 행동을 한 행위자.’이다.

[수형도 6) 3항 ‘被’자 구문, 표(4) ⑥의 도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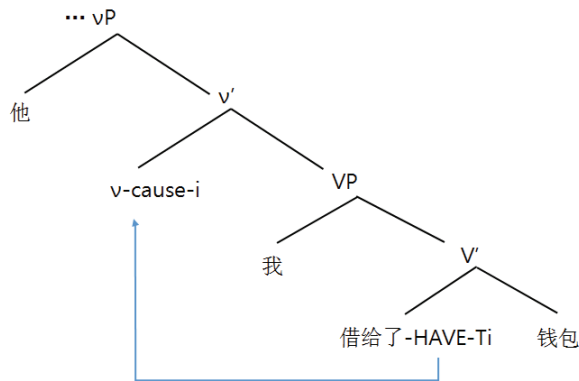
3항 ‘被’자 구문의 수형도를 보면 동사 ‘盜了’는 먼저 NP ‘钱包’와 병합을 하고, V’는 DP 행위자 ‘小偷’와 병합을 한다. 따라서 기초어휘의미의 단어배열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小偷’는 동사구 VP의 소유어가 되며, ‘被’는 경동사 자리에 위치하여 VP구와 병합을 하여 대주어에 피영향자 의미역 ‘他’을 할당하게 된다. 따라서 ‘他被小偷盜了钱包.’구문의 사건구조를 이루며 ‘피영향자인 ‘他’가 행위자 ‘小偷’에게 지갑을 도둑 맞히는 일을 당하게 되었다.’로 해석한다. 그리고 아래의 표(5)①②처럼 하나의 목적어(피험체)와 두 개의 주어(원인자 대주어)와 (경험자 소유어)를 포함하는 3항 非宾格동사 ‘수여’류 동사는 3항‘被’자 구문으로 변환을 할 수 없다. 원인을 살펴보면:

표(5) 3항 非宾格 '수여'류 동사는 3항 '被'자 구문으로 변환 불가능

3항 非宾格동사	3항 被자 구문
㉠ 学校租给了我一套房子。	* ㉡ 我被学校租给了一套房子。
㉢ 他借给了我钱包。	* ㉣ 我被他借给了两万块钱。

표(5) ㉠㉢의 3항 非宾格 구문을 3항 '被'자 구문으로 변환하면 비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항 非宾格 동사는 첫째, '원인자' 의미 즉 (CAUSE-HAVE)이지 '행위자' 구문이 아니다. 그러나 문장을 살펴보면 '내가 학교한테 무언가를 빌리는 것'처럼 '수여'류의 의미를 가진다. '수여'류 동사는 주어와 행위자가 될 수 없고 '무언가를 얻는' 구문이므로 변환에 제약이 따른다. 둘째, '租'는 '빌리다'는 의미와 '租给'라는 두 가지 경험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행위자 구문 非作格과 원인자 구문 非宾格의 사건구조가 다르므로 서로 변환을 할 수 없다. 아래 3항 非宾格동사의 사건구조 도출과정을 수형도로 알아보자.

[수형도 7) 3항 非宾格 동사, 표(5)㉢의 도출과정]



결국 수형도 6)의 3항 '被'자 구문과 수형도 7)의 3항 '非宾格동사'의 경동사 사건구조 도출과정이 서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3항 '非宾格 동사'는 '원인자'(CAUSE-HAVE)의 사건구조화 구문이지 '행위자'구문이 아니다. 그러나 3항 '被'자 구문은 경동사 '被'에 의해 사건구조화 되어, 외부논항이 피영향자의 자리에 위치한 구문이다. 그리고 '借给'와 같은 '수여'류 동사는 주어의 자리에 행위자가 올

수 없으므로 변환이 허용되지 않는다.

### Ⅲ. ‘被’자 구문, 非作格, 非賓格 동사의 변환과정

1, 2, 3항 ‘被’자 구조의 vP도출과정으로 살펴본 구문에서 ‘被’자 구문을 非作格 동사로 변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非賓格 동사로 변환하는 것에는 제약이 따른다. 아래 예문을 통해 1, 2, 3 非作格 동사가 1, 2, 3 ‘被’자 구문으로 변환되는 과정과 3항 非賓格 동사가 3항 被자 구문으로 변환함에 있어 나타나는 제약성을 표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표(6) 1항 非作格 동사를 1항 ‘被’자 구문으로 변환하는 과정

	1항 非作格 동사	1항 ‘被’자 구문
1	e打了同学。	同学被打了。
2	e抢了银行。	银行被他抢了。
3	e骗了家人。	家人被骗了。

표(7) 2항 非作格 동사를 2항 ‘被’자 구문으로 변환하는 과정

	2항 非作格 동사	2항 ‘被’자 구문
1	小王打了同学。	同学被小王打了。
2	他抢了银行。	银行被他抢了。
3	小王骗了家人。	家人被小王骗了。

표(8) 3항 非作格 동사를 3항 ‘被’자 구문으로 변환하는 과정

	3항 非作格 동사	3항 ‘被’자 구문
1	小王打了同学一耳光。	同学被小王打了一耳光。
2	他抢了银行二十万元。	银行被他抢了二十万元。
3	小王骗了家人很多钱。	家人被小王骗了很多钱。

표(9) 3항 非賓格 동사가 3항 ‘被’자구문으로의 변환 제약성

	3항 非賓格 동사	3항 ‘被’자 구문
1	我借了银行二十万元。	* 银行被我借了二十万元。
2	我租了学校房子。	* 学校被我租了房子。

표(10) 3항 非宾格 동사(수여류)가 3항 '被'자 구문으로의 변환 제약성

	3항 非宾格 동사	3항 '被'자 구문
1	他借给了我很多钱。	*我被他借给了我很多钱。
2	我还给他两本书。	*他被我还给两本书。

#### IV. 결론

본고는 현대중국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특수 구문 '被'자 구문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 1, 2, 3항 '被'자 구문 vP도출과정에서 경동사의 사건구조화 역할, 그리고 변환 가능한 동사와 불가능한 동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항 '被'자 구문의 vP도출과정에서는 기초의미 배열단계의 '被騙, 被抢, 被打碎'를 'ADV(被)-V'로 보느냐. 아니면 '(被)-V'덩어리 동사로 보고 vP도출을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2. 2항 '被'자 구문의 vP도출 과정에서는 경동사 [BECOME]을 핵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건구조화의 관점에서 그 도출 과정을 살펴보았다.
3. 3항 '被'자 구문의 vP도출과정에서 '경동사 vP'구문의 사건구조를 도출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DO-TO...ACT]라는 의미 성분이 어떤 구문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4. '被'자 구문, 非作格, 非宾格동사의 변환과정 즉, 서론에서 제기했던 '被'자 구문, 非作格, 非宾格동사가 서로 변환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증거를 '被'자 구문의 도출과정을 살펴 밝힐 수 있었다.

#### 【參考文獻】

朱德熙 《语法讲义》，北京：商务印书馆，1982.  
 登思颖 《形式汉语句法学》，哈佛大学，2010.  
 何元建 《现代汉语生成语法》，北京大学出版社，2011.

- 刘月华 《实用现代汉语语法》，商务印书馆，2004.
- 김종호 《현대중국어 '도구표시 술목구조 구문' 연구》，중국 언어연구，2015.
- 최병덕 《피(被)구문의 문법화 연구》，인문학지，2015.
- 최재명 《피(被)의 통사범주에 대한 재론》，중국언어연구，2015.
- 최병덕 《피(被)자문의 의미 연구》，인문학지，2015.
- 장태원 《被피동문의 NP1과 NP2의 의미 연구》，중국언어연구，2013.
- 朴胤朝 《현대 중국어 '说'류 동사 연구》，중국어문논역，2015.
- 黃正德 《汉语动词踢元结构与其句法表现》，哈佛大学语言学系，2007.
- 王家年 《汉语vP的优选句法研究》，上海外国语大学-博士学位论文，2012.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the matter structuralization role of light verbs and inconvertible verbs in drawing vP in the first, second, and third '被(pi)' sentence structure by examining the forms and characteristics of '被' special sentence structure which is frequently used in the modern Chinese. The following are the summary. First, in the vP deduction process of the first '被' sentence structure, whether vP should be deduced from '被騙, 被搶, 被打碎' by seeing them as 'ADV(被)-V' or '(被)-V' phrasal verb will be examined.

Second, in the vP deduction process of '被' sentence structure, the process will be studied from the matter structuralization viewpoint which takes place based on the light verb (BECOME).

Third, this study will look at which sentence structure the meaning component [DO-TO...ACT], which is necessary to deduce the matter structures of light verb vP sentence structure in the vP deduction process of '被' sentence structure, deduces.

Fourth,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the evidence regarding



whether '被' sentence structure, unergative verb, and unaccusative verb can be converted along with the deduction process of '被' sentence structure.

**【主題語】**

비능격동사, 비대격동사, 1,2,3항 '被'자문, 경동사

非作格动词, 非宾格动词, 1,2,3元 被动句, 轻动词

unergative verb, unaccusative verb, first, second, and third '被' sentence structure , light verb

투고일: 2016. 12. 26 / 심사일: 2017. 01. 20 ~ 02. 13 / 게재확정일: 2017. 02. 15